

**독** 저들의 잘못을 반사한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포: 우 110-140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은 문'은 이에게! 담당자 양 ● 인터넷: www.hann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은 문도 나에게

2010년 6월 2일(음 4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제 786호 현대불교

법공양 페이지

# 21

# 행주좌와 일거수일투족을 관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오늘 당신의 여려분과 같이 한자미 하게 된 것을 참견사하게 생각합니다. 책이 보지 않은 신문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일진왜란 때의 일들을 얘기하면 듣고 책으로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의 역사를 낱말이 봐 왔고 6·25의 참변을 낱말이 봐 왔습니다. 직접 당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에 저 국기만 보면... , 국기라는 이름을 떠나서 나라에 대한 우리들 전체의 진실한 마음들이 국기 하나에 응집해서 모두 걸음들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진왜란 때는 평민으로서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순국했던 호국 영령들이 많았고, 당시 평민이 수없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제 치하에서는 총알받이로 끌려간 군인들도 많았고, 징용당해서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힘이 약하고 먹지 못해서 지치면 실험대로 끌려가고,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으로 그냥 꼭 찢어서 죽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역사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어찌 오늘 내 일도 없는 오늘이 그 이름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리고 6·25가 낫을 당시에는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와 함께 그대로 그냥 물로 들어갔습니다. 포탄들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레도 그냥 펄펄 다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 있거면 한번 펄이 떨어져도 그냥 펄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한강 저 쪽과 한강이쪽에 장작개비 던져 놓듯 쌓아 놓아서 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을 것이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뿐입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에 전체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반쪽으로 갈려서 나뉘었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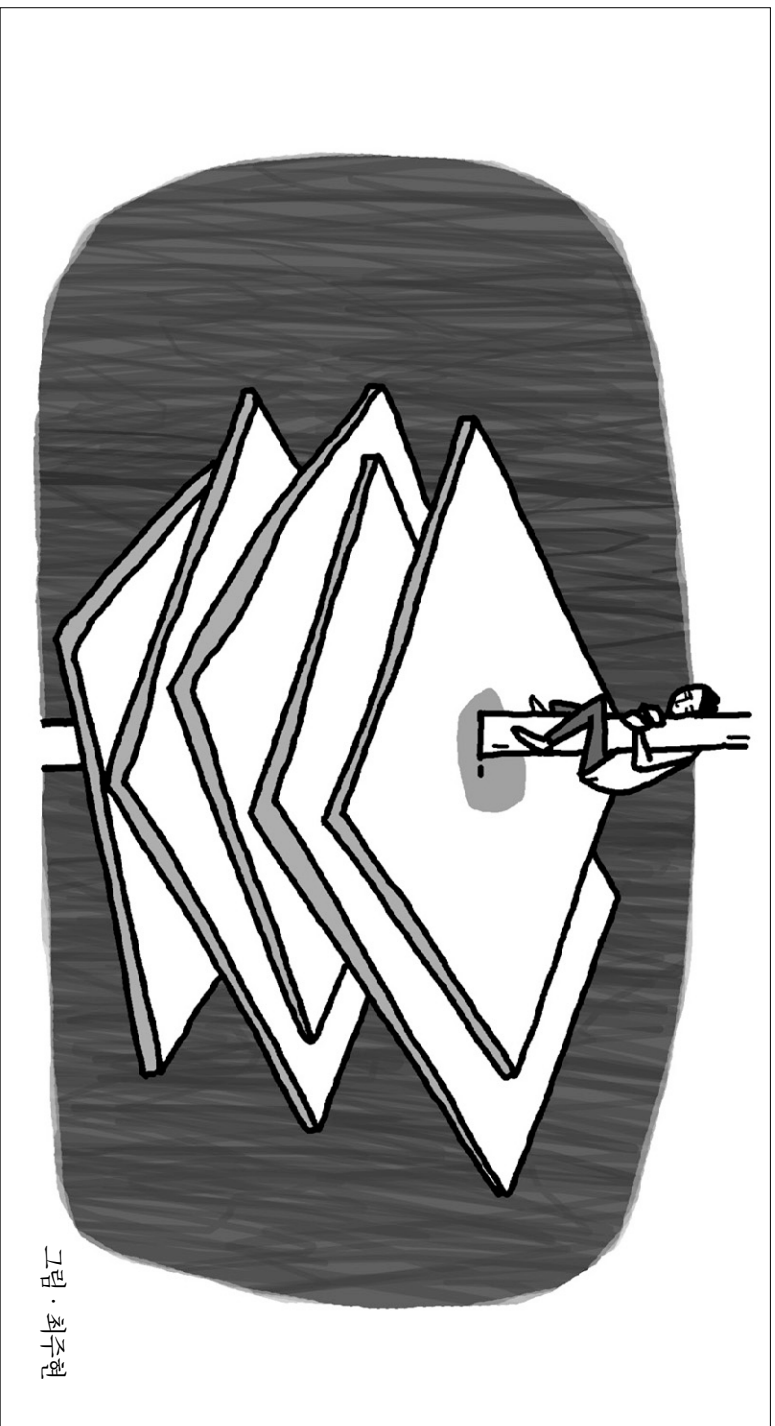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저 암을 몇 번 하고 만 것 같지만, 10년 전이니 20년 전이니 30년 전이니 40년 전이니 몇천 년 전이니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사실을 어머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한 속에, 모두 한마음으로 생신제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제주도에 법회가 있어서 잊고저게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꼭 채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3 번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골골마다 숨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바윗굴이든지 훔굴이든지 들어가서 살아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보니까 전부 뱀으로 화했어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해서 말을 잘하고, 한생각을 잘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에는 오직 '숨어야 산다' 하는 생각으로 꼭 쳐서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그런 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인해서 죽고 이쪽으로 인해서 죽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주도에서는 수호를 해야될 수 없는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제 세 번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냈는데 뱀이 이전 나오지 않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가 있고 방 아랫쪽에 와서 앉아 있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아 있고, 다섯 머리 여섯 머리 열 머리씩 문쳐서 그냥 부엌에도 있고 뒤편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내가 논문을 금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눈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물질계의 발전이 저 정신계의 발전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본래 정신과 물질이 같이 돌아가는게도 불구하고 저기가 자기 정신계를 무시하고 거기 때

문에 천체물리학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성천체물리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야만이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더더욱 아픈 것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나쁜 짓, 사기, 도둑질, 그거 뭐 말로 어떻게 다 하러가면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욱 더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계 50%를 모르고 산다면 바로 반쪽만 사는 격이 됩니다. 반쪽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결리고 결려서 자기 마음들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자유스럽지 못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꺾쩍할 사이에 모습 을 바뀝니다. 또,

결말 하나 짚어지고 캄핑 갔다가 거기서 서로 만나서 인연이 돼 가지고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선장으로

서 자기를 다스린다. 다스려서 놓는다. 일임한다. 맡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행주좌와 일거수일투족 관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그러면 생활이 즉 부처님 법이요 우리의 법입니다. 생활이 도고 생활이 참선이지 판 데 가서 도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의 인연이 주어지고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윤회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내 몸통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으로 들어 있습니다. 염이 판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애고그 판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 떠나면 그 자체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부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바로 중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통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의식들이 왜 그렇게 고(高)와 윤회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모두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느냐 이렇다면, 여러분 거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출정도로 발전이 됐지만은 자동적인 컴퓨터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짓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력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마시킬 수가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를 그대로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삼인으로

☎ 22번으로 계속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실용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께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KBS 과학카페



비연속 일정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세월개천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난센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권복감염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거동이 유익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파적 수술로써